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9호 [루계 제23336호] 주제100 (2011)년 1월 19일 (수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밟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기술개건된 1월 18일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파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술개건된 1월 18일기계
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
였다.

조선로동당 평안남도위원회
책임비서 홍인범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비서인 김기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박도춘동지, 태종수동지, 김
평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인 주규창
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를 현지에서 도와 공장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42
년전 1월 18일 몸소 현지
에 나오시여 공장터전을
잡아주신 뜻깊은 날에
아버지 장군님을 또다시 자기
들의 일터에 모시는 영광을
지닌 공장의 로동계급은 끌
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
었다.

공장의 로동계급은 올해에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아안고
새해 정초부터 드세찬 공격전을 벌려
생산에서 편밀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개
건된 공장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면서
기술개건성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
로 보여주시었다.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여리차례



공장에 찾아오시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생산
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림으로써
몇 해 사이에 공장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켰다.

또한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공장안팎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화려히 꾸려놓았
을뿐 아니라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에
서도 놀라운 전면을 가져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의 성능높은

CNC기계들로 장비된 생산공정들과 새
로 만든 기계제품들을 보시고 공장의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최신기술

에 기초한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 연구개발하여 생산
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높은 기술
을 요하는 어렵고 복잡한 기술개건공사
를 짧은 기간에 끝낸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당원들과 근

발휘하여 능력이 큰 최신식기계제품들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대하여 기뻐하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당의 과학기술중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
을 과감히 벌려온 결과 공장을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면시킬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 눈부신 발전은 진보와 혁신
으로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의 영
웅적으로 동계급이 지닌 위대한 정신력의
발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여러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책임일군들이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배워 문화후
생시설들을 훌륭히 꾸려놓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 있는데 대해 치하하시면서 우
리 일군들은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들인
로동자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
활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항상 머리를
쓰고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기술개선된 1월 18일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은 나라의 기계제작공업발전에서 중요한 뜻을 맡고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 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기계제품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새형의 능률을 높이는 기계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가까운 기간에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를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더 높은 생산목표들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을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줄기차게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현대적인 기계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광범히 벌리며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이 받아안은 과업은 아름차고 방대하지만 실천속에서

만련된 기술집단과 풍부한 경험, 굳건히 촉성된 물질기술적 토대를 가지고 있으며 결사판철의 투사들인 혁명적로동계급이 있기에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기를 주름잡으며 비약의 한걸로 번개같이 내닫고 있는 지금 이아말로 지도일군들의 최대한의 지원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은 당정책을 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풀피워나가는 실천가. 당에서 준 과업을 앞장에서 집행하는 결사판철의 투사가 되여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현대적인 기계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당의 경제정책 판철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 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승리의 대문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혁사적인 시기에 혁명의 총진군에 헌신적인 박차를 가하여 남들이 걸어온 단계를 단숨에 뛰어 넘어 세계에 솟구쳐 오르려는 천만군민의 투쟁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 총공세의

박차를 끊임없이 가함으로써 우리 대에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념원을 기어이 실현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친히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새로운 투쟁과 위훈에 불려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 주신 어버이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결사판철하여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적극 기여할 굳은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께 서

기술개선된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기술개선된 1월 18일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뜻깊은 12월 24일을 세계 60여개 나라의 조직 위원장, 노르웨이조선 친선협회 위원장과 영국의 친선단체 및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은 담화, 성명들에서 12월 24일은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을 비롯한 세계 60여개 나라와 지역의 정당, 단체들과 지역기구들이 서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저명한 인사들과 광범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부강번영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은 성명,
담화를 통하여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방글라데슈민족사회주의당
중장집행위원회 위원장, 평화
와 사회주의를 위한 페란드공
산주의로동당 위원장, 이탈리
아변증법적유물론무신론자들
현 맹현대성발전당, 민주평고
진정한 루뭄바주의애국당, 스
웨리에의 공산당, 남아프리카
진보적사상연구소조, 범아프리
카운동 서기국, 동유럽 및 중앙
려나왔다.
수많은 출판보도물들은 조
인민군이 자기의 혁명적성격
변함없이 고수하며 백두산혁
강군으로서의 위용을 남김없

세계 6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성대히 경축

아시아지역 주체사상파 선군군치연구협회 국제연합을 비롯해 세계 60여개 나라와 지역의 정당, 단체들과 지역기구들이 서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저명한 인사들과 광범위한 군중이 참가한 행사들에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선인민군을 그 어떤 강적도 범지 못하는 강위력한 혁명무력을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목소리가 높이 들려나왔다.

수많은 출판보도물들은 조선인민군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백두산혁명군으로서의 위용을 남김 없이

와 지역에서 성대히 경축

멸치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브라질공산당, 방글라데슈선군정치연구소조,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 아시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파의 친선협회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당, 단체들과 지역 및 국제기구들에서는 백두의 선군령장을 칭송하는 글들을 불례쩐과 인터네트홈페이지들에 편집하였다.

로씨야신문 《빠뜨리오뜨》, 중국 홍콩잡지 《국제현계》, 라오스신문 《꽁랍빠싸손라오》, 에짚트신문 《알 라이》, 우루파이신문 《라 후벤뚜드》, 네국내방송, 이탈리아의 카아뻬르따방송을 비롯한 신잡지, 방송들은 김정일각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이 정치사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해져되고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만을 멘치는 강군으로 라났으며 사회주의조선은 그 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강군으로 빛을 뿌리고있다고 전하였다.

백전백승의 혁사로 빛나는 조선로동당

여러 나라 당대표단 단장들이 격찬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
대표단 단장 제인 카恁터는 격
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
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를

그런데 그들이 나의 나라를
지향하는 진보적 정당들이 따라
배워야 할 본보기로 되고
있다.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로동

당은 강위력한 당,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적당이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
인민의 모습을 목격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
건과 학도경상, 그 성과를 더욱

직자,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필승불패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